

## ■ 21세기 '眞性 新人類'의 등장

- 새로운 「眞性 新人類」와 「상처받고 싶지 않다」 증후군
  - 90년대 등장한 새로운 신인류, 즉 '진성 신인류'들의 대표적 성향 중 하나는 정신적인 상처를 받는 것을 병적으로 기피하는 '상처받고 싶지 않다' 증후군임
  - 증후군 보유자는 상처받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로 전자메일과 전화에 의존하여 의사 소통을 추구함
  
- 眞性 新人類의 '포트폴리오형 인간 관계'
  -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증후군은 일상의 인간 관계를 상처받을 가능성의 최소화· 쾌락의 최대화를 지향하는 '포트폴리오형 인간 관계'로 변질됨
  - 포트폴리오형 인간 관계의 특징은 ① 자기가 필요한 목적에 따른 인간 관계의 다각화 추구(다양한 목적의 애인 관계 형성) ② 연출되는 인간 관계(목적에 따른 자아의 변신) ③ 터부(금기사항)가 없는 인간 관계(절교의 일상화) ④ 상대화되는 인간 관계 ⑤ 소외화된 인간 관계 등임

## 21세기 ‘眞性 新人類’의 등장

이 글은 NIRA 政策研究, 1999. 3., “新世紀における新しい新人類・「眞性新人類」の登場”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임

### □ 초대 新人類에서 21세기 ‘眞性 新人類’로

- 초대 신인류는 196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를 지칭
  - 고도성장시대에 유년기를 맞아, 가정에 칼라 TV가 존재하는 풍요롭고 현대적인 삶을 처음 보낸 뒤, 1980년대 후반에 사회인이 된 세대
- 최근 신인류에서 더욱 진화된 새로운 신인류(진성 신인류) 등장
  - 그 진화의 기반이 90년대 후반 급속하게 보급된 휴대 전화와 인터넷임

### □ 「상처받고 싶지 않다」 증후군의 만연

- 최근 젊은이의 행동·의식의 근간은 ‘상처받고 싶지 않다’ 증후군임
  - 이는 자신이 정신적으로 상처받는 것을 병적일 정도로 기피하려는 성향을 의미
- 증후군의 원인
  - 지나친 과보호: 1자녀 경향 정착으로 인한 자녀에 대한 관심 증가, 소득 증대로 인해 돈·선물로 자녀의 환심을 사려는 경향 증가
  - 현대 일본 사회의 停滯感: 스스로 상처받아서라도 손에 넣고 싶은 꿈이 없고, 사회적 성공 스토리가 발견되지 않음(현실의 구조조정 등 불안 만연)
- 증후군 보유자가 현실에서 상처받을 때, 소위 ‘단절된다’라는 상태에 빠짐
  - 교사에게 주의받은 학생이 교사를 칼로 찌른 사건 등이 그 대표적 예
  - 이 사건의 원인은 자신의 자존심이 상처받은 것에 대한 일종의 과잉 반응임
  - 사건의 책임은 본인뿐만 아니라, 과보호를 용인한 가정과 사회에게도 있음
  - 21세기 들어 단절된 젊은이가 증가할 경우, 「황폐한 학교」가 「황폐한 직장」, 「황폐한 사회」로 충분히 연결될 수 있음

□ ‘상처받고 싶지 않다’증후군과 의사 소통 스타일

- ‘상처받고 싶지 않다’ 증후군과 의사 소통 스타일은 밀접한 연관을 가짐
  - 증후군 보유자는 일상 생활 중에 상처받을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행동을 하며, 커뮤니케이션도 이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짐
- 전자우편, 전화, 대면 순으로 상처받을 가능성이 낮음
  - 대면과 전화의 가장 큰 차이는 시선이 존재하는지 여부이며, 전자메일은 시선은 물론 육성도 존재하지 않음
  - 증후군 보유자의 통신수단 이용은 상처받지 않기 위한 현명한 선택이며, 이런 측면에서 전자우편 송수신 가능 휴대전화, 전자우편 전용의 휴대기기가 히트상품이 되는 것은 단순한 유행이 아님(여기서 화상 전화는 의미없음)

<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의 비교 >

	대면 ←	전화	→ 전자메일
대인 관계	실제		가상
시공간의 공유성	시공간 공유	시간만 공유	공유성 없음
침묵은....	어색함	어색함	당연함
상대방 반응의 체감도	가장 높음	약간 있음	없음
상처받을 가능성	강함		없음

▼  
 포트폴리오에 따라, 최적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선택

□ ‘포트폴리오형 인간 관계’의 형성

- 21세기 정보화 진전에 따라 ‘상처받고 싶지 않다’ 증후군은 일상의 인간 관계를 ‘포트폴리오형 인간 관계’로 변질시킴
  - 젊은이들은 쾌락의 최대화와 상처받을 가능성의 최소화를 지향하여, 자신의 인간 관계를 선택(경제학에서 안전·위험 자산 간의 포트폴리오 이론과 동일)
- 포트폴리오형 인간 관계에서 파생하는 구체적 특징은 다음의 다섯 가지임
  - ① 인간 관계의 분산(手段化)
    - 특정 인간 관계로의 과잉 개입을 피하고 다양한 인간 관계를 동시에 유지함으로써 인간 관계에 수반되는 위험을 분산하고, 상처받을 가능성을 감소시킴
    - 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인간 관계의 다양화를 통한 위험분산 전략임(예, 젊은 여성의 경우 본래 남자 친구 이외에 다양한 목적을 위한 남자 친구를 두는 것)

② 연출되는 인간 관계: 「자기 찾기」 게임 몰두

- 인간 관계의 목적을 위해 그 인간 관계에 맞는 인격을 무의식 중에 자기 연출하게 됨
- 만약 연출된 자신이 일상의 대부분을 점하게 되면,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할 기회조차 잃게 되고, 「자기 찾기」 게임이 시작됨(占보기는 하나의 예임)

③ 금기가 없는(Taboo-free) 인간 관계: 특히 性에 대해 현저함

- 특정 인간 관계가 싫어지게 되는 경우, 냉정하게 절교하기만 하면 됨
- 즉 중장기적 장래를 고려하여 현재의 즐거움을 방기하는 것을 무의미하며, 따라서 포트폴리오형 인간 관계에서 금기라는 개념은 들어올 여지가 없음

④ 상대화되는 인간 관계: 「당신은(お宅は)」 과 인터넷

- 포트폴리오형 인간 관계를 기초로 하는 집단에서는 집단의 참가자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집단으로서의 고정적인 질서가 구축되지 힘들
- 이에 따라 집단 내에서의 인간 관계는 항상 상대화되며, 이에 따라 이름보다는 「당신은」이라는 객관화된 용어 사용이 빈번해짐

⑤ 소외화되는 인간 관계: 소외감으로부터 탈출의 꿈

- 포트폴리오형 인간 관계에서 당사자는 자신도 역시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기분이 들 때, 강한 소외감과 동시에 자신을 필요로 하는 ‘場’을 탐색하게 됨
- ‘구매의존증’이나 자신의 존재 과장 등의 행위는 소외감 해소의 한 수단임

□ 眞性 新人類들과 21세기의 일본 사회

- 21세기 일본을 조망해볼 때, 진성 신인류의 선배인 30대 후반의 초대 신인류가 수행하는 삶의 방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임

- 초대 신인류는 가치관·사상 측면에서 20세기와 21세기를 연결하는 세대
- 이러한 의미에서 초대 신인류는 21세기 주인공인 진성 신인류의 지향성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존재임

- 초대 신인류의 ‘특성’을 허용·지원하는 일본 사회가 되어야 함

- 진성 신인류가 ‘상처받고 싶지 않다’ 증후군을 극복하고, 공감과 보람을 느끼는 21세기 사회를 능동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초대 신인류가 지닌 ‘독창성’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

■ 황동언 연구위원 hde@hri.co.kr ☎724-4055